

## 이영희의 의상작품에 응용된 한복의 요소

김혜경 · 홍정화 · 조현정

원광대학교 의상학과

### Design Elements of the Korean Traditional Costume Applied in the Works of Lee Young-Hee

Hye Kyung Kim, Jeong-hwa Hong and Hyun-jung Cho

Dept. of Clothing, Wonkwang University, Iksan, Korea

**Abstract :** The fashion designers in Korea can achieve the winning position in the competitive international market of fashion industry by adapting our own traditional beauty to the modern fashion design through the modernization of the Korean traditional style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works of the active Korean fashion designer, Lee Young-Hee, focusing on the subject how she incorporated the modern fashion with the elements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In order to study this subject,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were used to collect and analyse the design elements of Korean costume used in the designer's works found from the major fashion magazines, *FASHION TODAY*, *WWD*, *ELLE*, *BAZAAR*, *Marie Claire*, *Areumdown-Uri-Ot*, *The Beauty of Korea* and *FASHION SHOW* from 1993 to 1999. The collected research data, 95 works, was counted and analyzed in terms of the formal characteristics borrowed from Korean traditional clothing items and their application techniques. Other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her works such as color, fabric and pattern were also analyzed.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Lee Young-Hee has adapted many different kinds of major Korean clothing items including 'chima', 'paji', 'po', and 'chogori'. Also it was apparent to note that the formal characteristics of Korean traditional clothing items were successfully incorporated into her fashion design works expressing the beauty of oriental grace, naturalism, sophistication, and above all, the modern sense.

**Key words :** fashion design, Korean traditional costume, Lee Young-Hee, design elements

## 1. 서 론

복식은 인간의 의식세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한 사회의 문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한 요소이며 그 사회의 특징을 가지적으로 표현해 주는 매체가 된다. 대체로 20세기의 한국복식은 현대화의 과정으로 서양복식을 확립적으로 수용하는 양상을 보여 왔으며 이로 인하여 한국복식에 대한 관심도 감소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점차 우리 민족의 전통성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나타나 여러 패션 디자이너들이 한국복식의 요소를 응용하여 한복의 아름다움을 재현하려는 작품들을 국내외 컬렉션에 발표하여 왔다.

한국복식에서 디자인의 발상을 가져와 우리 민족 고유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은 한국적 조형의식을 기초로 하면서도 현대성에 부합하는 창작활동을 의미하므로 지금까지의 관념적인 디자인 의식을 보다 합리적이며 실용적인 측면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김인경, 1997). 이와 같은 노력은 장신구 및 직물

디자인 개발 연구(박현정, 1996; 정연자, 1996; 조은아, 1996; 권오성, 1997)에서도 보여지는데 이들 연구에서는 단청, 떡살, 창살 등 전통적인 요소를 현대패션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전통적인 아름다움이 시대와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다는 조형예술의 범주를 확장시켰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패션 디자인에 적용된 전통적인 요소에 관한 분석을 다룬 연구로는 금기숙(1992, 1999), 최세완 · 김민자(1993), 김인경(1995, 1998), 임영자(1996), 여상미(1997)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한국복식의 요소를 활용한 대표적인 패션 디자이너로 설윤형, 이신우, 진태욱, 김동순, 이영희 등을 들고 있다.

이 디자이너들의 작품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형태에 있어서 한국복식의 윤곽선이 보여주는 부드러운 곡선을 디자인의 포인트로 활용한 점이라고 보았으며, 색채에 있어서는 백색과 원색 대비의 사용, 소재에 있어서는 면, 모, 견, 마 등 전형적인 전통 자연소재의 이용, 문양에 있어서는 전통문양을 활용하여 한국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이영희는 한국복식의 아름다움을 형태적인 측면에서 현대디자인에 많이 활용하였던 대표적인 디자이너로 지적되었다.

Corresponding author; Hye Kyung Kim  
Tel. +82-63-850-6645, Fax. +82-63-850-7301  
E-mail: hanel@wonkwang.ac.kr

한복을 통해 우리 나라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린 디자이너로 평가받고 있는 이영희는 한국의 패션디자이너 중에서 한국적인 독창성을 지닌 작품을 가장 많이 발표해왔다.

1986년 파리에서 열린 한-불 수교 100주년 기념 패션쇼 작품발표를 계기로 한복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데 관심을 갖게되었던 그는 1993년부터 파리 컬렉션에 참가해 한국의 전통미를 응용한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발표해왔다. 대부분의 디자이너들과는 달리 한복디자이너로 출발한 디자이너라는 특징을 갖는 이영희는 한복의 멋을 담은 작품을 통해 “한국 여인에게 아름다운 옷은 서양여인들에게도 아름다울 수 있다(News Week, Nov. 4, 1999)”는 그의 주장을 실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복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왔던 디자이너 이영희의 작품 분석을 통하여 한국복식의 형태적 특징이 현대 디자인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문헌 고찰을 통하여 한국복식의 조형적 특징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을 정리하고 한국적 이미지를 표현한 다른 여러 디자이너의 작품들에 나타난 디자인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고찰내용을 바탕으로 1993년부터 1999년까지 발표된 이영희의 작품 가운데 한국복식을 응용한 작품들을 수집하여 분석대상으로 이용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하여서는 1993년부터 1999년까지 국내에서 발행된 잡지인, *FASHION TODAY*, *WWD*, *ELLE*, *BAZAAR*, *Marie Claire*, 아름다운 우리 옷, 한국의 미와 일본에서 발행된 잡지인 *FASHION SHOW*가 사용되었다. 연구의 범위는 이영희가 파리컬렉션에 처음 작품을 발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국제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던 1993년부터 1999년까지로 정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총 95작품을 일차연구자료로 이용하여 주된 연구의 관점으로 이들 작품에 나타난 한국복식의 형태적인 응용과 그 조형적 특성 분석에 두고 한국복식에서 디자인 아이디어를 가져온 한복 아이템 별 빈도와 그 응용 방법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이영희의 작품에서 응용되었던 각 한복 아이템의 원형패턴을 제도하고 그 위에 그의 작품에서 변형되었던 부분을 제시하면서 응용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더불어 이들 작품에 나타난 다른 조형적인 측면인 색채, 소재, 문양과 장식에 관한 특징도 함께 살펴보았다.

## 2. 한국 복식의 조형미

의상 작품에 나타난 이미지는 형태, 색채, 소재, 문양, 장식 등 여러 디자인 요소를 통하여 표현된다. 따라서 한국적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한국복식의 요소를 응용하였던 디자이너들의 작품 특징을 디자인 요소 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 2.1. 형태

한국복식의 형태는 저고리·치마 또는 저고리·바지의 기본 구조를 이루며 상의와 하의를 구분하여 왔다. 한복의 윤곽선은

**Table 1.** Adaptation of the Hanbok styles in the Korean fashion designers' works

디자이너	응용 방법
설윤희	•저고리, 치마, 마고자, 버선 등의 곡선미 응용 •이음선이나 치마끝선을 깨끼바느질로 마무리
이신우	•저고리의 여밈과 옷고름, 두루마기, 버선 응용 •직선 깃과 흉배를 응용한 벨트
김동순	•치마, 당의, 남자 바지의 곡선미와 풍성한 형태 응용
진태욱	•한국복식의 형식은 가능한 배제하는 대신 곡선미와 손자수로 한국적 감성 강조
홍미화	•치마, 저고리,침리의 형태 응용
이용열	•조각보를 이용한 의상디자인 •저고리의 옷고름 응용
최창호	•치마 착장시 보이는 한국적 조형감각을 표현
지춘희	•조선중기 관복의 이미지를 활용
김철웅	•두루마기의 형태 응용
안파가로	•당의의 형태 응용
트로아조	•원삼의 형태 응용

인체의 움직임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보여지는 고정된 선과 외부적 작용에 의해서 변하는 동적인 선으로 나눌 수 있다. 동정, 깃, 진동, 쉼, 도련 등은 고정된 선으로 직선과 곡선이 결합된 정적인 미를 이루고 있으며, 치마, 고름, 배래선 등은 유동적인 동적인 미를 표현한다(여상미, 1997). 나아가 한국복식은 인체에 밀착되지 않아 여유가 있고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형성한다. 여유가 있는 표면처리로 인해 유발되는 자연적인 주름은 율동적이면서도 다양한 느낌을 연출하여 경직된 직선보다는 완만하면서 부드러운 곡선미를 선호하는 한국인의 미적 정서를 보여준다.

여상미(1997)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현대 패션디자인에 있어서 한국적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한국복식의 디자인 요소는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러 패션 디자이너들이 한국복식의 실루엣이나 건축, 도자기 등에 나타난 완만한 곡선의 아름다움을 이용하여 한국적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Table 1에서 보면 한국복식 중에서 저고리, 치마, 바지, 두루마기와 같은 기본적인 아이템의 형태적인 특징을 가장 많이 응용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대 패션 디자인에서 가장 자주 활용된 품목은 저고리이며 특히 저고리의 옷고름, 깃, 배래, 도련의 곡선미는 한국적 디자인의 특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었다. 단순한 구조적 특성을 갖는 치마는 전체적인 외관의 조형적 특징을 살린 디자인들이 보여졌는데 홍미화는 속치마로 착용하였던 무지기 치마를 현대화한 독특한 형태의 디자인을 발표하여 '내의(內衣)의 의외화(外衣化)'현상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상고시대부터 우리 민족이 애용해왔던 바지는 풍성한 형태

에서 나타나는 둥그스름한 실루엣과 바지를 구성하는 면과 선의 만남의 조화를 활용하고 있다. 바지에 행전을 했을 때에는 숭마용 조드퍼즈(jodhpurs)와 유사한 흥미로운 형태를 연출할 수 있는데 김동순은 작품에서 한복 바지의 풍성한 형태를 응용하여 둥글고 부드러운 곡선미를 갖는 바지를 표현하기도 하였다(김기숙, 1999).

## 2.2. 색 채

복식의 조형요소로 감성이 중요시되고 있는 현대에는 색에 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근래의 전통 문화에 대한 재인식은 한복의 색과 그 조형성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일으켰다(이혜숙·김재숙, 1998). 비교적 단순한 형태를 보이는 한국복식에 있어서 색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일반적으로 한국인의 색채의식은 이중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 중 하나는 개방적 색채관으로 원색을 사용한 단청, 불화, 고분벽화 혹은 색돛웃, 공예품에서 나타나는 화려한 색을 포함하고 다른 하나는 폐쇄적 색채관으로 화려한 원색을 피하고 무채색을 주로 사용하는 금육주의적 색채의식이다(김동철, 1989).

이러한 이중구조는 상호 보완하는 독특한 감각을 형성하여 화려함과 동시에 단아한 아름다움도 보여주고 있다. 한국복식에 있어서 일상복의 주된 색으로 사용되었던 백색은 대개의 경우 표백된 순백색이 아니라 소재색 그대로인 소색으로 옅은 색상을 띤 깊은 맛을 주는 백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색으로부터 유래된 무채색의 사용, 특히, 흑백의 대비는 기하학적인 이미지의 의상디자인에 많이 표현되어왔는데(김기숙, 1992) 백색의 색채감정은 순수한 것, 본연의 것, 비장식적인 것의 귀의를 뜻하는 우리민족의 겸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최세완·김민자, 1993).

동양의 음양오행설에 기초하여 청색·적색·황색·백색·흑색을 기본으로 하는 원색은 주로 강조하기 위한 색으로 애용되어왔다. 그러나 김인경(1995)은 한국적 이미지를 표현함에 있어 외형적인 조형요소 중 색채가 가장 적게 나타났던 이유를 음양오행설에 의한 색의 상징성과 신본체계에 따른 복식색 제한에 의해 과거의 색채가 현대적인 감각과는 다르게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 2.3. 소 재

한복 소재의 미적 특성은 직물의 조직적인 특징과 더불어 형태와 조화되어 나타나는 분위기로 표현된다. 현대 패션은 한국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전통적으로 한국복식에 사용되었던 면, 견, 마 등 천연섬유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복식은 견과 같이 곱고 정교한 소재와 더불어 면이나 마와 같은 거칠고 투박한 소재도 사용하여 다양한 질감과 표면효과를 나타내었다. 울이 굵어 거친 느낌을 나타내는 면과 삼베, 정교하고 섬세하며 투명한 모시, 자연스러운 광택과 부드러운 촉감을 갖는 명주 등은 한국복식이 추구하는 직선과 곡선의미를 다양한 분위기로 표현하고 있다.

현대 패션 디자인의 예를 들어보면 이신우의 작품에서는 전통소재인 모시의 조각이음을 통해 입체감과 면 분할로 인한 조형적 성격을 강조하였고, 이용열의 작품에서는 노방을 이용하여 뛰어난 옷맵시와 견직물 특유의 우아한 광택으로 독특한 한국적인 분위기를 표현하였다(여상미, 1997).

## 2.4. 문양 및 장식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대자연의 질서에 조화롭게 순응하면서 풍부한 상상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아름답고 다양한 문양들을 창조해 왔다(허균, 1995).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바탕이 되는 무속신앙과 동양사상은 문양에 행복과 길상을 염원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나아가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해온 한국적인 조형감각은 자연에 대한 친밀감을 표현하였는데 한 예로 식물문양이나 동물문양과 같이 자연에서 보여지는 대상을 문양의 모티브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복식에 사용된 문양은 의복 자체의 재료와 색, 형태 등의 조건 위에서 다시 새로운 형태나 색으로 주제인 복식에 보조적인 미적 장식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김영자, 1992).

문양은 디자인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밋밋한 의복 표면에 장식함으로서 생동감을 불어 넣어주는 역할을 한다. 나아가 문양은 의복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생활 감정을 표현하게 되는데 이는 각 사회와 문화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양식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패션 디자인에 표현된 문양의 고찰을 통해 디자이너의 조형의지를 추측해 볼 수 있다. 현대 패션 디자인에는 주로 자연문인 식물문양이나 기하학문의 사용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염희정(1998)과 김혜경·정성일(199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디자이너 설문형이 전통문양에서 모티브를 빌려와 현대패션에 가장 많이 적용한 디자이너로 나타났다.

장신구는 복식의 미적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도 하지만 그 자체로도 조형적인 미적 특성을 지닐 수 있어서(김기숙, 1994) 한국복식에서 사용되었던 장신구들이 현대 디자인에서도 자주 활용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 예로 김동순은 단추 대신 비녀를 여밈의 도구로 활용하여 한국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기도 하였으며 설문형은 귀주머니 형태의 장신구를 현대의상에 부착하거나 금박이 놓인 땡기를 벨트와 같이 서양복식에 응용하여 한국복식의 아름다움을 현대복식에 재현하였다(김혜경·정성일, 1999).

## 3. 이영희 작품에 나타난 한복의 요소

이영희의 작품에서 표현된 한복의 요소는 주로 형태적인 면에 집중되어 있었고, 더불어 색채, 소재, 문양 및 장식적인 면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한국복식의 조형적 특성을 강하게 표현하였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특히 형태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디자인 요소 별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Table 2.** The Hanbok items adapted in the Lee Young-Hee's works

한국복식 아이템	계	%
여자 치마	39	41
포	29	31
여자 저고리	11	12
남자 바지	5	5
당의	3	3
배자	3	3
남자 저고리	1	1
마고자	1	1
장옷	1	1
전복	1	1
적의	1	1
합 계	95	100

**3.1. 형 태**

형태는 복식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색과 함께 대상의 시각적인 경험을 형성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영희의 작품에서 응용하고 있는 한복 아이템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이는 한복 디자이너로서 작품활동을 시작했던 이 디자이너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Table 2에 정리된 결과에 의하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었던 총 95점의 작품에서 이영희가 응용하였던 한국 복식 아이템의 종류는 모두 11가지로 여자치마, 포, 여자저고리의 형태가 가장 자주 응용되어 전체 95점 가운데 79점(84%)을 차지하였고 이 외에도 남자 바지와 저고리, 배자, 전복, 장옷, 적의, 마고자, 당의의 형태를 응용한 작품도 나타났다.

이 작품들은 한복의 형태를 전체적으로 응용하기보다는 주로 한복의 독특한 분위기와 미적 감각을 표현하고 있는 실루엣의 특징을 부분적으로 선별하여 응용하고 있으며 이 연구결과는 Table 3에 정리하였다. 예를 들면 저고리의 배래와 도련선,

**Table 3.** The adaptation methods of the Hanbok items found in the Lee Young-Hee's works

한복 아이템	응용 방법
여자치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끼허리와 말기허리 치마의 구성을 원피스 드레스 디자인에 응용</li> <li>• 착장방법으로 기너치마의 실루엣 연출</li> </ul>
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몸에 맞는 파자마형의 고무려 포와 풍성하고 넓은 소매를 가진 조선시대 포의 형태적 특징을 자켓과 코트 디자인에 응용</li> </ul>
여자저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적인 기본원형을 그대로 사용하고 깃, 섹, 끝동에 부분적 변형</li> <li>• 저고리의 배래와 도련의 곡선 응용</li> </ul>
남자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착장 시 자연스럽게 접혀진 허리부분과 넓은 바지 폭으로 인한 독특한 실루엣 연출</li> </ul>
당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의의 가장 특징적인 양귀 부분의 형태를 응용</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의, 배자 등의 전체적인 구성을 그대로 응용하고 부분적으로 변형</li> </ul>



(a) (b) (c)

**Fig. 1.** Adaptation of the chima a; Adaptation of the malgi-huri chima (Marie Claire, 1998. 1.), b; Adaptation of the joggi-huri chima (Elle, 1998. 1.), c; Adaptation of the chima using different wearing methods (Marie Claire, 1998. 12.)

당의와 마고자의 외곽선 등을 이용한 실루엣의 재현이 자주 이용되었다. 전체 작품 중 가장 자주 응용되어 한복의 이미지를 잘 반영하고 있는 여자 치마와 저고리, 포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들을 선정하여 각 한복 아이템의 기본원형과 이영희의 작품에서 변형된 방법을 표시하여 본래의 한복형태가 어떻게 응용되었는지를 제시하였다.

**여자치마(Fig. 1):** 이영희에 의하여 가장 많이 응용된 한국복식은 Fig.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자치마이었으며 전체 95점의 작품 중 39점(41%)에서 보여졌다. 전통 한복치마는 몸체와 허리띠, 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종류로는 조끼허리 치마와 말기치마가 있으며 치마의 폭은 평면의 천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치마는 허리띠 아래로 주름을 잘게 잡아넣는 형태를 이루고 있어서 풍성한 실루엣을 연출한다. 나이가 넓은 폭이 자연스럽게 접혀지며 나타나는 수직선이 움직임으로 인해 파생하는 울동적인 곡선미는 치마의 형태적 조형미의 특징을 보여준다.

분석결과 한복치마를 응용한 이영희의 작품들은 주로 구성적인 면과 착장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를 주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의복구성에 있어 변화를 시도한 작품들은 어깨선을 노출시키는 말기치마의 응용과 조끼허리치마의 응용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치마의 폭은 넓을수록 높은 계층을 나타내고 아름답다고 인식되어오던 전통미와는 상반되는 형태를 보여 현대적인 단순한 라인으로 인체의 선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약간의 여유를 준 좁은 폭의 치마가 많이 나타났다. 또 다른 치마의 응용은 착장방법으로 변화를 준 것으로 풍성한 치마의 형태적 특징을 응용하여 흥미로운실루엣을 연출하고자 했던 작품으로 나타났다. 의복구성에 있어서의 여자치마의 응용방법은 그 실례를 원형패턴과 변경된 패턴으로

제시하였다.

**말기허리치마의 응용 :** 말기허리치마를 이용한 작품을 Fig. 1a에서 보면 한복치마의 말기를 폭을 넓게 하여 마치 끈으로 여러 겹 감은 듯한 모양을 보이고 있다. 그 넓은 폭에는 수를 놓아 장식을 하였고 치마부분은 본래 한복의 여미는 부분이 터져 있는 형태를 활용하였다. 한복 치마의 넓은 폭과는 반대로 인체에 꼭 맞는 형태를 취했으며 한복의 뒤트임 대신 그와 반대로 앞트임을 이용하였다. 전체적으로는 말기허리와 허리에 주름을 잡고 트임이 있는 것으로 한복 치마의 형태가 활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a는 말기허리를 이용해 만든 전통 한복치마의 패턴을 사용하여 여기에 치마폭을 줄이고 트임이 앞부분에 오도록 하였다.

**조끼허리치마의 응용 :** 조끼허리치마를 응용한 작품은 Fig. 1b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의상은 조끼허리를 서양복식의 사각형라인 원피스의 상체와 같은 형태로 변형시켰고 치마부분은 한복의 스란치마의 형태를 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치마허리의 진동과 옆선이 한복에서와 같이 직선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가슴선 아래에서 한복치마의 전형적인 형태인 셔링(shirring)으로 자연스런 주름을 잡아주고 치마길이를 줄여줌으로서 한복치마의 실루엣을 응용하였다. 응용방법을 보여주는 패턴의 제시(Fig. 2a, b)에서는 네크라인의 앞부분을 깊이 파주었고 진동부분에서는 어깨 끝점에서부터 몸에 꼭 맞게 변형하였으며 조끼허리의 길이를 원형보다 조금 길게 늘여주었다.

**착장방법을 이용한 한복치마의 응용 :** 이규태(1991)의 우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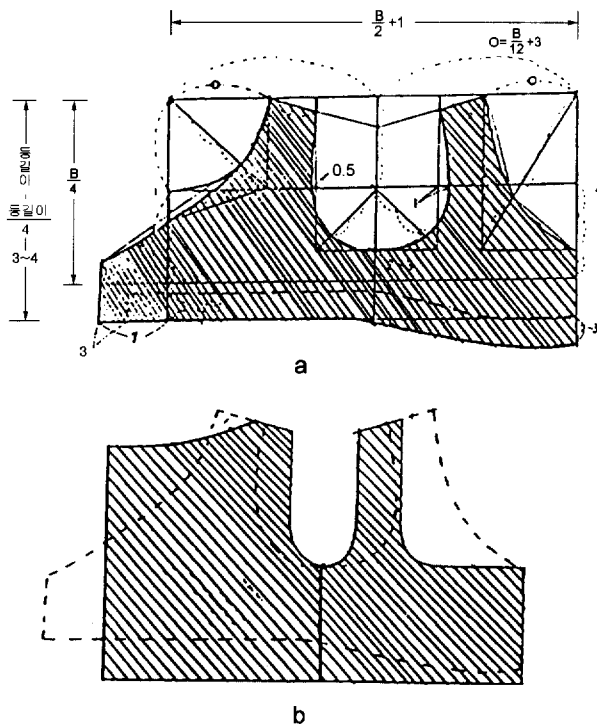


Fig. 2. Adaptation of the joggi-huri chima. a; Pattern for the joggi-huri chima (김분칠, 한복구성학, 서울: 교문사, 1995, p.76.), b; Variation of the pattern



(a) (b)

Fig. 3. Adaptation of po. a; (Bazaar, 1999. 1.), b; (아름다운 우리 옷, 1997. 12.)

옷 이야기에서 한복치마는 입을 방법에 따라 서른여섯 가지의 멋진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Fig. 1c의 작품에서는 치마를 착용할 때 사용되는 허리띠의 위치에 변화를 주어 조선시대 기녀복식에서 보여졌던 실루엣과 유사한 형태를 연출하였다. 이러한 작품들은 조선시대의 기녀들이 성적인 매력을 표현하기 위해 치마를 말아 올려 입었던 방법을 응용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통해 곡선의 리듬감을 갖는 흥미롭고 입체적인 효과를 창출하였다.

포(Fig. 3): 포의 형태는 전체 95점의 작품 중 29점(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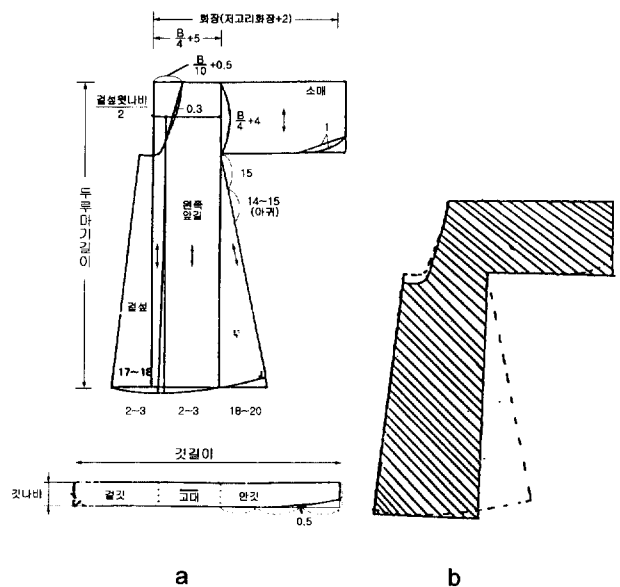


Fig. 4. Adaptation of the po of the Chosun Dynasty. a; Pattern for the po of the Chosun Dynasty (이주원, 한복구성학, 서울: 경춘사, 1999, p.298.), b; Variation of the pattern

작품에서 응용되어 치마 다음으로 이영희가 자주 응용하였던 한복 아이템으로 나타났다. 포는 원래 저고리와 바지 위에 입는 의복으로 방한의 목적에서 점차 의례적인 용도로 착용범위가 넓어졌던 겹옷으로 조선시대에는 두루마기라고도 불렸다.

Fig. 3a의 작품에서는 전체적인 실루엣에 있어서 포의 변형을 찾아볼 수 있으며 더불어 선단이 대어져 있고 폭이 좁은 소매의 형태로 응용되었다. 앞여밈부분과 소매는 포의 원래 실루엣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Fig. 3b는 깃과 옷고름을 비롯해 포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폭을 조금 줄여 준 것과 소매통을 좁게 하여 변형을 시도한 작품을 보여주고 있다. Fig. 4에서는 조선시대 남자 두루마기의 패턴을 이용하여 변형된 부분을 제시하였는데 이 작품에서는 앞여밈을 조금 아래로 내리고 폭을 줄였으며 소매를 직선의 형태로 바꾸었던 원형의 변형 작업을 표시하였다. 포는 주로 자켓과 코트 디자인에 응용되었는데 본래의 포의 형태를 거의 변형시키지 않고 그대로 가져오기도 하였고, 포에서 깃, 선단, 소매의 형태를 빌려와 응용하기도 하였다.

**여자 저고리(Fig. 1b, Fig. 5):** 저고리의 형태가 응용된 작품은 11점(12%)으로 치마와 포 다음으로 많이 응용되었던 한복 아이템으로 주로 몸판, 깃, 섹, 소매 부분의 형태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복 저고리에서 보여지는 특징적인 디자인 포인트를 적극 도입하여 주로 옷의 길이, 직선과 곡선의 조화를 이루는 실루엣, 저고리의 디테일, 배래, 결마기, 끝동, 옷고름, 깃, 등을 응용하였다. 가장 많이 응용되었던 저고리의 앞길과 소매의 변형을 패턴으로 제시해 보았다.

**앞길의 변형:** Fig. 1-b의 작품은 저고리의 복잡한 디테일을 단순화시킨 것으로 저고리의 섹을 없애고 여밈을 고름으로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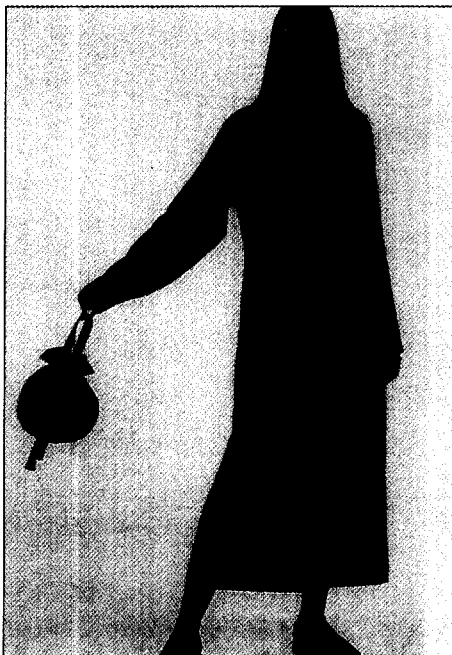


Fig. 5. Adaptation of the women' chogori (Fashion Today, 1993.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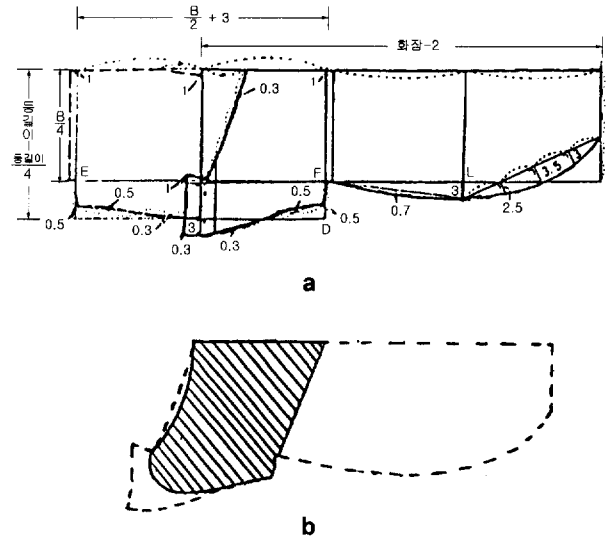


Fig. 6. Adaptation of the women' chogori. a; Pattern for the women's chogori (김분칠, 한복구성학, 서울: 교문사, 1995, p.74.), b; Variation of the pattern

는 대신 양쪽의 앞 중심선이 매듭단추로 여머지도록 변형하였다. 이영희는 일반적으로 소매의 길이에 여러 가지로 변화를 주었는데 Fig. 6의 패턴제시에서 보면 이 작품에서는 어깨부분에서 길이를 연장시켜 짧은 소매(extended shoulder length)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깃 부분은 한복 깃의 양식을 그대로 살려 한복에서 가져온 디자인 아이디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전체적으로 앞 중심선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처리하여 여성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소매의 변형:** Fig. 5의 작품은 전통 색동 저고리의 배래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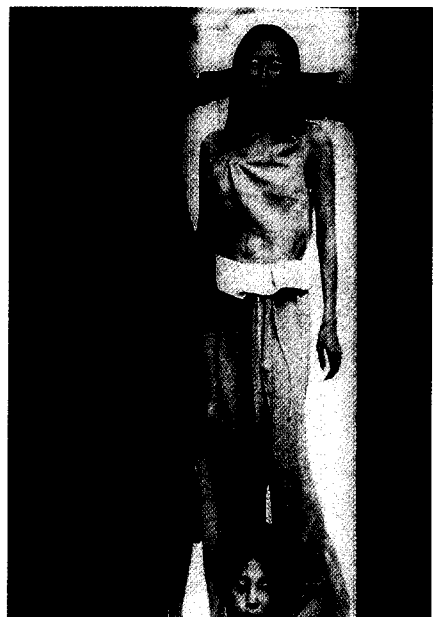


Fig. 7. Adaptation of the men's paji (Bazaar, 1998.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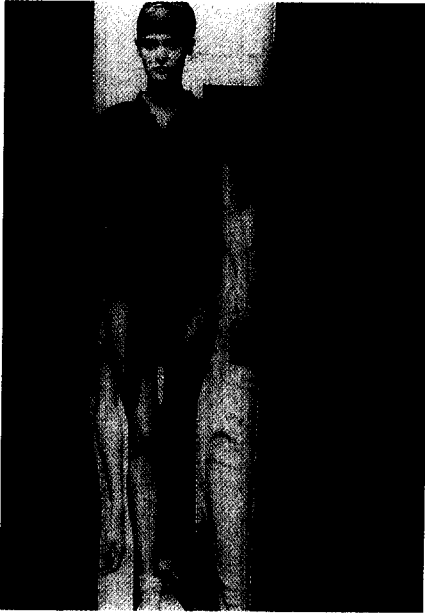


Fig. 8. Adaptation of tangeui (아름다운 우리 옷, 1997. 12.).

을 소매 부분에 응용한 것으로 전체적인 구성은 서양 복식에서 가져온 것이나 색동의 표현과 배래의 선에서 한국복식의 형태를 엿볼 수 있다.

**남자 바지(Fig. 7):** 남자 바지의 응용은 5작품(5%)에서 나타났다. 한복 바지는 마루폭, 사폭, 허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넓은 폭에 의한 여유 있는 형태로 여러 종류의 체형을 가진 사람에게 모두 잘 맞고 착용자의 체형에 따라 각각 다른 맵시를 보

여줄 수 있다. Fig. 7의 작품은 한복 바지의 형태를 보이는데 특히 허리 부분에서 허리를 묶고 허리의 끝 부분을 뒤집어 놓아 착장했을 때의 바지의 허리 모양을 연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량한복바지의 패턴을 이용하여 길이를 늘리고 허리부분에 허리띠를 보충하여 이 띠를 몸 판이 봉제되어질 때 같이 넣어 부착시키거나 아니면 별도로 허리띠를 바지 위에 묶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바지도 치마와 마찬가지로 실루엣의 특징을 응용해서 새로운 형태로 디자인한 작품들이 많았다.

**당의(Fig. 8):** 여자 예복으로 다른 디자이너들에 의해서도 응용되었던 당의 형태는 이영희 작품에서는 3작품(3%)에서 나타났다. 당의는 예복 중 가장 간편한 한복으로 양 귀가 섹코같이 뾰족하고 옆 트임이 있는 것이 디자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당의의 형태적 특징 가운데 원형의 길이와 소매에 약간의 변형을 주어 응용하는 디자인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Fig. 8의 작품에서는 당의의 원형패턴에 길이를 허리까지 줄이고 소매를 둥근 곡선으로 잘라 주고 앞여밈을 조금 올려 주는 방법으로 변형되었다(Fig. 9a, b). 이와 같이 당의는 여성복 디자인에 있어서 앞길과 뒷길의 밑단의 양쪽 끝을 굴려 주는 형태로 응용되었다.

**기타:** 치마, 저고리, 포, 바지 외에도 한복의 전통적인 실루엣을 구사하면서 풍성한 한복의 특징을 응용하여 창작된 작품들은 적의, 마고자, 장옷, 배자, 전복의 형태를 응용하고 있다. 조선시대 여자예복 중 51쌍의 원적이 수놓아져 있던 왕비의 의복인 적의가 응용되었는데 본래의 색채와 장식을 거의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소매부분에서만 약간의 변형을 주어 긴 자켓의 형태로 재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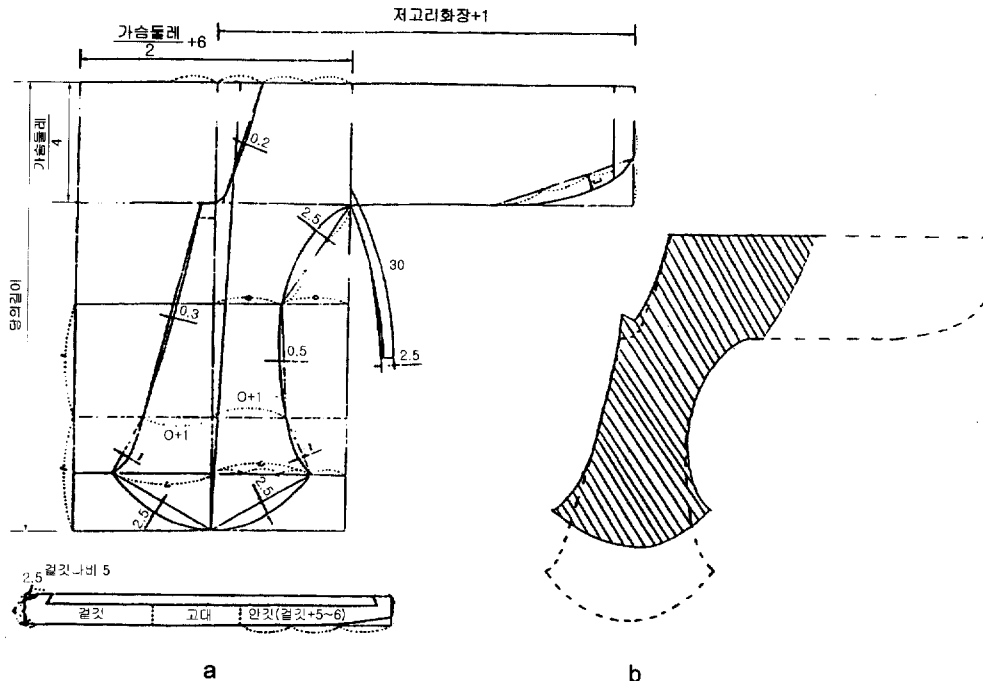


Fig. 9. Adaptation of tangeui. a; Pattern for the tangeui (손경자, 전통한복양식, 서울: 교문사, 1992, p. 253), b; Variation of the pattern

저고리 위에 입었던 서양복식의 조끼와 같은 형태를 가진 배자도 적의 응용과 마찬가지로 원래의 형태는 그대로 두고 진동과 끝단에 모피를 달거나 여밈의 위치를 바꾸어 응용하였다. 이밖에도 배자의 응용에서는 길 원형의 길이를 변형하거나 앞길을 유선형으로 굴러주는 형태로 표현하였고 마고자나 전복을 응용한 작품에서는 포의 응용에서처럼 기본 실루엣은 그대로 두고 의복의 길이와 소매의 폭에 변형을 주어 자켓 디자인에 이용되었다. 장옷은 원래의 기능을 살려 머리를 감싸는 디자인으로 이용했으며 주름을 잡아 쓰개의 형태로 표현하였다.

**3.2. 색 채**

일반적으로 현대 복식에서 한국적 디자인을 표현하는데 있어 색채의 응용은 가장 적은 예로 나타났으나 이영희 작품들에서는 색채를 통하여 자연과 동양의 멋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연구결과 이영희 작품들의 주된 색채는 흰색이나 가공하지 않은 소색(素色)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에 검정과 회색 등의 무채색과 잉크빛(쪽빛) 블루라 불리는 감정색계열이 많이 사용되었다. 한국복식에서 뿐 아니라 현대 디자인에서도 한국적 이미지의 표현을 위해 자주 쓰인 소색은 우리 민족이 애용한 가공하지 않은 직물에서 나온 흰색으로 인공이 배제된 자연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3.3. 소 재**

현대 디자인에서 한국적인 이미지를 표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전통적인 한국복식의 소재로는 주로 견, 마, 면을 들 수 있는데 소재의 조직적인 특징과 분위기가 한국복식의 형태와 조화되어 나타난다. 분석결과 이영희의 작품들에는 다양한 질감의 소재가 사용되었는데 거친 듯 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가공된 수직 실크를 비롯하여 노방, 명주, 양단, 공단, 갑사 등 광택이 강한 한복소재와 무광택의 면과 투명성을 갖는 모시의 이용으로 전통적 분위기와 한복의 맵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더불어 닥종이로 만든 웨딩드레스를 서양의 복식과 접목시켜 전통적 우아미(優雅美)로 승화시킨 작품도 제안하였다.

**3.4. 문양과 장식**

베링거가 장식은 시대나 민족의 조형양식의 특성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전형이라고 언급했듯이(조규화, 1989) 이영희 또

한 문양과 장식으로 한국적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다. Table 4의 연구결과를 보면 화문, 조문, 색동, 수복문 등 비교적 다양한 종류의 전통문양이 직문, 자수, 패치워크의 장식기법으로 활용되었다. 그 중 가장 자주 쓰인 문양은 직문 또는 자수로 적용된 화문인데 자연문양을 이용하여 동양의 신비로움과 한국적 정서를 표현하였다. 이영희의 디자인에서 보이는 또 하나의 특징은 한국적 장신구의 사용으로 한지로 된 소품을 제작하여 전통적인 두발형식이었던 상투를 응용한 머리장식으로 이용되었으며 한지를 엮어서 만든 신발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전통적인 여자 장식품이었던 노리개와 족두리를 비롯하여 남자복식에서 쓰여졌던 갓과 망건도 응용하여 한국적 전통미를 표현하였다.

디자이너 이영희에 의해 세계적으로 발표되었던 의상들은 우리의 역사와 정신이 배어있는 복식미를 특히 형태적인 면에서 현대감각에 맞게 재구성하여 표현하고 있어 우리의 한복이 세계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국복식의 아이টে임을 의복구성에 있어서의 변형과 다양한 착장방법으로 동양과 서양이 융합한 형태의 디자인을 창출함으로써 한국적 이미지의 현대화를 실현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는 이영희의 작품을 대상으로 그의 작품에 나타난 한복의 요소에 관하여 형태적인 요소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형태적으로 응용된 한복은 11종류의 아이টে임으로 여자 치마가 4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포 31%, 여자 저고리 12%, 남자바지 5%로 나타났고, 이밖에도 배자, 적의, 마고자, 장옷, 전복 등이 활용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한국복식 중 몇 개의 아이টে임만을 활용하였던 대부분의 디자이너들과는 다르게 이영희는 다양한 한복 아이টে임을 여러 방법으로 응용하여 이를 형태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전통미의 현대화를 시도하였고 이를 통해 다채로운 한국 고유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독자적인 디자인 영역을 구축하였다. 특히 한복의 형태미에 있어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비대칭적 균형감과 풍성하고 여유가 있는 형태가 만들어내는 자연적인 주름의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연한 곡선미를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생동감 있게 보여줌으로서 한국적 디자인의 독창성과 세계적인 작품으로서의 보편성을 동시에 실현시켰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한복원형을 부분적으로 변형시켜 한국복식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완만한 곡선미를 표현하고 있는 점에서는 설윤형, 이신우, 김동순과 같은 다른 디자이너들의 작품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으나, 의상의 착장방법에 변화를 주어 한복의 미적 특징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표현하였던 점에서는 이영희 작품만의 특수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치마를 말아 올려 입었던 조선시대 기녀복식에서 보여졌던 형

**Table 4.** The traditional motifs and application techniques used in the Lee Young-Hee's works

문양의 종류 장식 기법	문양의 종류				
	화문	조문	색동	수복문	합계
직문	10			1	11
자수	3	1			4
패치워크			1		1
합계	13	1	1	1	16



태와 허리를 묶고 허리의 끝 부분을 뒤집어 놓아 착장했을 때의 남자바지의 형태를 응용하여 곡선의 리듬감을 갖는 흥미로운 입체적인 효과를 창출한 작품들에서 볼 수 있다.

셋째, 다른 디자이너들의 작품들에서보다 한국적인 미적 감각을 보여주는 색채와 소재를 더욱 빈번히 이용함으로써 내재적인 한국복식의 아름다움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전통적인 흰색과 소색, 재래식 염색방법을 이용한 감정색 등 한국적인 자연색을 많이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색채는 한국복식의 주된 소재인 노방, 양단, 공단, 명주 등에 적용되어 동양적인 화려함을 표현하기도 하였으며, 무명의 사용으로 한국복식의 실용성과 소박함을 강조하거나, 모시의 특수한 재질감을 이용하여 우리민족 고유의 정서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패션디자인 분야에서 시도되었던 현대화 작업은 올바른 역사의식의 부재로 인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성을 고수하면서도 세계적으로 보편성을 갖춘 한국적 디자인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적인 것을 찾는 작업은 전통의 뿌리가 되는 사상과 양식에서부터 출발하기보다는 산발적으로 전통적인 것들의 작은 부분들을 대입하거나 조합하여 창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한복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은 점차 증대되고있으며, 나아가 여러 분야의 학자들은 전통미를 활용한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한국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여러 디자이너들은 그들의 작품을 통해 한국적인 조형미를 표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시점에서 볼 때 이영희는 다양한 종류의 한복 아이템들을 형태적으로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재구성하거나 착장방법에 변화를 주어 한국적인 이미지를 적절히 표현함으로써 패션에 있어 전통성과 현대화를 융합시켰으며 이를 통해 한국적 디자인이 세계의 패션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세계화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여러 한국 패션디자이너의 작품에 관한 지속적인 분석을 통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성을 기초로 하면서도 세계화된 디자인의 창출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실물 작품이 아닌 사진자료를 이용하였으므로 이러한 한계점을 밝히고자 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00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되었음.

## 참고문헌

권오성 (1997) 한국 전통문양을 이용한 스카프패턴에 관한 작품

- 연구. 성신여대 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금기숙 (1992) 한국 전통복식미의 현대적 활용. *복식*, 19, 29-40.  
 금기숙 (1994) "조선의 복식미술". 열화당, 서울, pp. 133, 139.  
 금기숙 (1999). 패션 디자인을 위한 한국복식의 활용 현황에 관한 연구. *복식*, 43, 69-81.  
 김동철 (1989) 한국 전통적 이미지의 현대적 표현에 관한 연구. 경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분철 (1995) "한복구성학". 교문사, 서울.  
 김영자 (1992) "한국의 복식미". 민음사, 서울, p. 155.  
 김인경 (1995)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9(3), 542.  
 김인경 (1998) 파리컬렉션에 나타난 한국적 패션 디자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38, 233-244.  
 김정숙 (1991) 전통 문양을 응용한 장신구 디자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경·정성일 (1999)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전통문양의 응용·설운형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8(3).  
 김희정·이경희 (1997) 한국적 의복이미지의 구성요인과 디자인 특성. *한국의류학회지*, 21(3), 589-599.  
 박현정 (1996) 한국창살문양의 현대적 표현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경자 (1992) "전통한복양식". 교문사, 서울.  
 여상미 (1997) 현대복식에 활용된 한국복식의 디자인 요소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희정 (1998) 잡지 분석을 통해 본 우리나라 현대복식에 표현된 전통 문양-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상명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규태 (1991) "우리의 옷 이야기". 기린원, 서울.  
 이주원 (1999) "한복구성학". 경춘사, 서울.  
 이혜숙·김재숙 (1998)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 지각(제2보)-여자 한복의 상·하색 조합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8), 1053.  
 임영자 (1996)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동양의 미의식 연구. *복식* 30, 261-274.  
 정연자 (1996) 전통문양을 응용한 도제목걸이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조형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규화 (1989) "복식미학". 수학사, 서울, p. 153.  
 조은아 (1996) 단청문양을 활용한 장신구 조형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세완·김민자 (1993) 현대패션에 표현된 한국복식의 전통미-1980년대 이후 한국디자이너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7(1), 103-118.  
 허균 (1995). "전통문양". 대원사, 서울.  
 BAZAAR 1993-1999.  
 ELLE 1993-1999.  
 FASHION SHOW 1993-1999.  
 FASHION TODAY. 1993-1999.  
 Marie Claire 1993-1999.  
 WWD 1993-1999.

(2001년 3월 3일 접수)